

## 주간 총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다음 주일(16일)  
추수감사주일  
(2·3부 가족연합예배)  
및 특별찬양(찬양예배)

말씀과 삶(금요찬양집회)

하나님과의 대결  
(미가 2:3~12)

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가? 이 둘을 다 본다면 충돌이 임박해 있고, 그 충돌을 피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된다.

1.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바라보자 미가는 먼저 부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죄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잡자리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일들을 계획한다.(미 2:1~2) 어떤 이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 죄의 본질과 또 죄가 어떻게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미가는 지적한다. 예수님도 음란은 음욕을 쫓는 것에서 시작됨을 말씀하셨다.(마 5:28) 살인은 미워하는데서 시작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였다.(요일 3:15)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오려면 먼저 그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만 한다.

2. 마음에 심어진 악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은 마음에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부자들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의 죄악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깊이 깔려져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며 일하신다.(창 6:5 ; 미 2:3)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방어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재앙을 떨어뜨리는 악한 자들을 범죄한 만큼 심판하신다.(미 2:4)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방향을 돌리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주일, 집회 및 모임마다 말씀이 설교되고 있지만 진정한 설교는 듣기 싫어하는 외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미 2:6) 예배와 각종 매체, 서적을 통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먼저 진정한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가는 설교하지 말라는 심한 비판까지 받았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대에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정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말씀임을 주장하였다.(미 2:7) 오늘날 우리는 말씀들이 확실하고 믿을 만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마땅히 감사로 넘쳐야 할 것입니다.(엡 2:3)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져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를 향해 비침직한 찬양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힘보다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진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양입니다.(골 3:16) 특별히 2008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동행하신 주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세상에 취해 죄의 종 노릇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사망하시는 형제들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살후 2:13)

죄인을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골 2:7) 특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살전 3:9)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헌금을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추수감사헌금의 의미를 설명하며 스스로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많은 물질이 아니더라도 풍성한 믿음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러시기 바랍니다.(막 12:42) 2·3부 예배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족연합예배로 드리며 찬양예배 시에는 가브리엘·벤엘 찬양대(오케스트라)의 특별찬양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9:15)

\*영아·유아·유치·고등부는 자체 예배입니다.

충거 있는 말씀인가 살펴보아야 한다.

3. 진정한 말씀은 반향을 일으킨다 미가의 설교는 반향을 일으켰다. 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미가를 향하여 “당신은 종교에나 관여할 것이지 정치는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노하심과 심판에 관하여 미가가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겐 감중하고 또 전파할 것을 원하였다.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저항을 받은 선지자는 미가만이 아니다.(암 7:12)

4. 하나님의 길이 제시될 때에 반대한다 인간은 관대하시고 감성적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듣기를 원한다. 그러나 믿을 만한 설교는 저항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제시될 때에 마찰이 일어날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행 7:54~58)

5. 진정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진정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다.(미 2:7) 반면에 거짓 예언의 본질은 인간들의 말을 선포하는데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자는 인간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다.(고후 2:16~17) 진정한 설교는 악을 고발한다. 미가 선지자는 사회악을 고발하였다.(미 2:8~10) 참된 설교는 좋은 소식과 함께 나쁜 소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경에는 많은 나쁜 소식이 담겨져 있다.(롬 3:23) 진정한 선지자는 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어야 한다.(행 7:51~52) 미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자의 모습을 말해준다.(미 2:11)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며 자신들의 악한 것들을 덮어주는 설교자를 인간들은 원하고 있다.(렐전 4:3~4)

진정한 설교는 진리를 강조한다. 진실한 설교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설교하지 않고 소망을 제시한다.(미 2:1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록 사회악을 저주하고 심판을 예언하였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었다. 그 땅에서 악인들이 쫓겨날 것을 알던 후에 그는 또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선포하였다. 이 소망의 근거는 회개와 믿음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은 죄와 심판을 크게 외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신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죄인을 부르신다. 회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제시한다.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진정한 설교를 듣고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원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호 6:1~2) 아멘.

# WHO'S IN CHARGE?

*<sup>(1)</sup>The LORD reigns,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many islands be glad.*

*<sup>(2)</sup>Clouds and thick darkness surround Him;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His throne.*

*<sup>(3)</sup>Fire goes before Him And burns up His adversaries round about. <sup>(4)</sup>His lightnings lit up the world;*

*The earth saw and trembled. <sup>(5)</sup>The mountains melted like wax at the presence of the LORD, At the presence of the Lord of the whole earth. <sup>(6)</sup>The heavens declare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 peoples have seen His glory. (Psalm 97:1~6)*

It's so sad but so true that many of today's church goers proclaim that they are Christians, yet their own dust controls them. Who is really in charge of your life? Without doubt, we are living in a terrible world. Hunger, disease, pollution, war, terrorism, violence, and every kind of evil one can imagine surround us. Even low morals, divorce, drugs, sickness, anger, and hatred are everywhere. Is there any hope? What will become of us? Does anyone have any good news? Are there any better days ahead for us? Today's Bible verses begin, "The Lord reigns, let the earth rejoice....."(v. 1) Do these words get you excited? Do they fill your heart with joy and peace? They truly can change your whole outlook on life if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If you know that the Lord reigns, then you can relax. If you really believe this then you can experience His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You can cast your cares on Him knowing that He cares for you. 1Peter 5:6-9 say, "Therefore humble yourselves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that He may exalt you at the proper time,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Be of sober spirit, be on the alert. Your adversar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 But resist him, firm in your faith, knowing that the same experiences of suffering are being accomplished by your brethren who are in the world." Stop trying to take charge of things and live by faith. Faith means that you do not believe in yourself, but that you believe in God,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2Cor. 5:7) Our society is set-up with the mindset of look at me, look at my clothes, look at my ear, look at my bank account, look at my house, etc..... Everybody keeps looking and society keeps getting worse. Christians don't live by sight! Jesus calls to u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t. 11:28-30) Is your soul restless? Are you relaxed throughout each day? I'm sorry to have to ask you, but if you are worrisome, uptight, nervous, anxious, or just plain stressed-out then where is your faith? If you are wrapped up in your own knowledge, seeking wealth, or busy making a name for yourself, then you reign. When I read or hear the words that the Lord reigns, amazing things just come out of my heart. I hope Jesus Christ is in charge of your life, so that you can experience true relaxation.

If you know that the Lord reigns, then you can also have joy. If you really believe this then you can experience His lov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you join in the earth's celebration? The world's condition was known to God from the beginning. Jesus revealed the signs preceding His return, "But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and the stars will fall from the sky, and the powers of the heavens will be shaken. And then the sign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the sky, and then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and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the sky with power and great glory. And He will send forth His angels with a great trumpet and they will gather toge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one end of the sky to the other." (Mt. 24:29-31) Does the thought of Jesus' return excite you? Will you rejoice at His second

coming? Before His return, difficult times will prevail. (2Tim. 3:1) Many people at this time will have some form of godliness but without its power; they will always be learning but never able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2Tim. 3:5-7) These are the people who can't let go of the world, who don't deny themselves, and will not give up their ways. The Bible prophesizes about them, and I hope you are not one of them because all prophecy will be fulfilled. Luke 21:25-28 further state, "There will be signs in sun and moon and stars, and on the earth dismay among nations, in perplexity at the roaring of the sea and the waves, men fainting from fear and the expectation of the things which are coming upon the world; for the powers of the heavens will be shak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But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straighten up and lift up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 Now, I'm asking you again, who is in charge? Is it you or Jesus? God has a plan, a great plan, an eternal plan. Are you going to join in this plan or not? Why won't you rely on God? Why do you keep holding on to destruction, instead of letting go to life? Romans 8:28-30 say, "And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ose whom H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com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so that He would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and these whom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and these whom He called, He also justified; and these whom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Who is in charge of you?

If you know that the Lord reigns, then you need to remember it all the time. We are not the first to live in difficult times. Israel suffered bondage in Egypt for four-hundred years, David was pursued by Saul time and again, and the early church endured horrific persecution, which included martyrdom. When you are feeling down or when fear tries to get the best of you, consider Jesus. He died on the cross for you with pain and shame.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Is. 53:3) He was beaten, nailed, and pierced with a spear. (Mt. 27) The good news is that His resurrection vindicated His message, guaranteeing our salvation, "who was declared the Son of God with power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Jesus Christ our Lord, through whom we have receive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among all the Gentiles for His name's sake, among whom you also are the called of Jesus Christ." (Rom. 1:4-6) There is a Savior. He can be your Savior through faith.

My dear friend, if Jesus is in charge of your life, then God's plan for your life is unchanged by what is happening on this earth. Today's Bible verses tell us, "Clouds and thick darkness surround Him;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His throne. Fire goes before Him and burns up His adversaries round about. His lightnings lit up the world; the earth saw and trembled. The mountains melted like wax at the presence of the Lord, at the presence of the Lord of the whole earth. The heavens declare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 people have seen His glory." (vv. 2-6) Please commit your all to the Lord of all, and stop worrying. Who is in charge? Be humble, this is simple, just go to the Lord.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men. 

## 다을 주일 설교

## 누가 다스리는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로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데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시편 97:1~6)



김성호 목사

습격해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무가치한 것들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아, 질병, 환경오염, 전쟁, 테러, 폭력 등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 주위를 진치고 있습니다. 윤리의식의 상실, 이혼, 마약, 질병, 분노, 미움이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회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1절) 이 말씀을 듣고 기운이 생깁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안겨 주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씀은 삶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 때 심을 누릴 수 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여러분은 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행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알 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6~9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일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이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후 5:7)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옷, 자신의 차, 자신의 은행계좌, 자신의 집 등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럴수록 사람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여러분의 영혼은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긴장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만약 늘 걱정이 많고, 불안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로 완전히 녹아져 되어 있다면,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만의 지식으로 푹푹 물들었고, 부를 추구하며, 명성을 얻는 데 분주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며 그로 인해 여러분이 진정한 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 때 기뻐할 수 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임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29~31) 예수님이 제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흥분되십니까? 예수님의 제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림하시기 전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딤후 3:1) 이 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딤후 3:5~7) 이들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25~28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망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다시 한번 볼겠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원한 제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제위에 참여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왜 생명으로 가는 길 대신에 멸망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니까? 로마서 8:28~30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라

주께서 다스리심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고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무수무수한 핍박뿐 아니라 순교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차갑고 두려움에 여러번을 넘어뜨리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사 53:3) 예수님은 매를 맞고 못 박혔으며 창에 찔리셨습니다.(마 27:3)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메시지가 입증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혀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롬 1:4~6) 주께 감사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을 보십시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로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데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2~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의 주께 맡기십시오. 누가 다스리십니까? 겸손해지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M**

## 2008년 제3차 청지기운전을 통한 은혜

#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 (에베소서 2:22)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부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 ✠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주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거하시기에 나의 몸과 마음이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마저도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이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작은 모퉁이들에 불과하더라도,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를, 즉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 즐기노라하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습 3:17)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나의 아주 작은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거듭났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한 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어 있을 때에도, 잠을 자며 꿈을 꾸고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한 청지기훈련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이 고백을 드리며,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에게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김미영(권철, 8교구)

### ✠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매번 청지기훈련 때마다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드렸지만 확고한 믿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가요? 아니 인간의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인가요? 그러나 얼마 전 위임목사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보혈로 만든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 마당 풀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와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교회,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모래위에 지은 교회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충현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은자(집사, 6교구)

### ✠ 거칠고 단단한 모단 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였다. 적어도 나는 교회의 벽들은 될 것이라라는 생각을 하며……. 그런데 '거칠고 단단한 모단 돌'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다가왔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속사람은 자아가 살아 있어서 쉽게 분노고, 시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역시 나는 거칠고 단단한 모단 돌이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살아있는 물들로 지어진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잘리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작은 돌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빚어 가실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기대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살아있는 충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사 43:1)

김영환(집사, 2교구)

### ✠ 저는 아무 힘도 없으니

해마다 세 차례의 청지기훈련이 있지만 나는 지난 3차 청지기훈련을 새로운 의미로 맞았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제2차 청지기훈련 이후 4개월 동안 나는 무척 깊고도 힘든 광풍속에 있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든 나에게 두 달의 입원과 사고 등 정신적·물질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 지친 나를 흔들려왔다. 결국 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아무 힘도 없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금요찬양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이 얼굴을 다쳤다든 전화를 받았다. 음급실로 달려가 근처 병원을 해낸 뒤 수술을 받고 나니 날이 환해졌다. 주일 새벽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말도 하기 싫고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라고 푸념하자마자 '파르름' 벨소리가 울렸다. 암으로 투병하시던 같은 구역의 집사님이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전갈이었다. 이후 삼 일 내내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전화가 들 힘이 없었다.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말씀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담합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끄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 가시려고 풀무로 연단하시고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다. '별엘로 올라가서'는 주일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처음 믿음과 약속을 돌이키며 아픔과 같이 진심어린 눈물의 회개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왜 나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왜 자꾸 의심하는지……, 또 가족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였음을 고백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치지 않을 것 같은 폭풍도 '공포와 축복을 피하는 곳 같은 왕십리 그리스도 예루'(사 32:2)의 말씀처럼 잠잠해져서 평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구역원이 다 함께 청지기훈련에 참석할 수 있었다.

오명자(집사, 15교구)

### ✠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

매번 청지기훈련이 교회의 연중 행사의 하나로만 느껴져 저에게는 은혜를 감당하는 간절한 마음이나 기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 청지기훈련을 앞두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알고, 이로 인해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앞쪽 자리에 앉아 청지기훈련에 임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회개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는 분명히 주님이 계시고, 나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거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며 그곳이 어디든 구별하지 않고 거하시니다는 것과 믿음이 기초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매사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주님께 불순종하고 회개 보다는 나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여서 급급했던 이 죄인을 오늘까지 벌하지 않고도 불쌍히 여기시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이제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불순종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교회의 주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원성(집사, 13교구)

##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 ❖ 겸손한 주님의 증인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사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에 거하실 처소를 접하면서 과연 나 자신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용기를 주시는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슴 벅찬은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겠지요. 주님의 성전인 심령이 성결하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악이 성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시온성을 향하여 진리 편에 서도록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눔이(권사, 20교구)

### ❖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늦으면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3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는 <주기도> 찬송을 부르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주제로 두 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들었다.

나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기뻐했다. 또한 우리를 구별하시어 세우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우셨다는 사실에도 감사했다.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정말 주님의 영광만 높이려리며 찬양하고 또 순종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이번 청지기훈련을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2009년에 있을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된다.

강성중(중동2부)

### ❖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산 돌

**제1차 '교회의 방패와 삼금'** 제2차 '두 세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 말씀으로 순종하며 지냈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대하여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청지기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말씀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실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은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가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놀라운 성령의 특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성전이 되도록 힘쓰는 현령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대는 경건의 능력이 점점 쇠하여 가는 시대요, 생명의 열매보다 형식에 더 많이 치중하는 시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이 시대에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며 영적 각성을 하여 은혜의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려면 교회를 더럽히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광스런 성전이 되도록 항상 성령을 좇아 행하며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산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변화한 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들이 참 교회가 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임영애(집사, 16교구)

### ❖ 하나님에 정하신 돌

**미연하고 약하고 둔하여** 어디 결할 데 없는 나에게 지극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하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2008년에도 이제 열 달을 보내고 제3차 청지기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습관으로, 또 청지기훈련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방패와 삼금이 되는 주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두 세계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주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신앙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영광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에 나도 따라서 "여기 우리가 모여 찬양 드리는 이 산 재물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참 형상이 아니라 온전케 하지 못하고 실체는 복음이라는 것과 율법적 형식은 하나님께 가증함이며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영적 처소로 살아있는 영적 돌들로 지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온몸 피에 적셔서 세상에 버린 바 된 그 돌이 성전의 모퉁이돌로 쓰인 것과 세상적 인간의 자람이 되지 말라 하심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나머지 돌들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톨로로 가르고 복음으로 순결되어 정해진 장소, 언약 안에 있는 계획된 그곳에 놓여져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에 의존하여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놀라운 기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중요하고 귀한 돌들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돌이기 때문입니다.(사 87:2~3) 세상의 어려움은 환난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입니다.

김경숙(집사, 18교구)

### ❖ 나에게 주신 특명!

**나는 매일 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았다. 내 잘못된 생각지도 않은 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오히려 주님께 짜증을 내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어째서 나만 할 수 없는 건가요? 더 나아갈 수 없나요?' 제가 진정 책나기의 자녀라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아요?

나는 매주 금요일찬양회와 주일예배는 빠지지 않고 항상 드린다. 하지만 나의 머리에는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일췌했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진보는 있었다. 바로 이번 청지기훈련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 여태까지 나에게 교회란 '일 주일에 한 번씩 10년지기 친구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나는 교회가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것과 그 성전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사실을 예전에 성경공부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거의 없었다. 그런 나에게 의문이 생겼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고 계실까?'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매일의 삶을 즐기고 노느라 바쁘고 하물며 예배시간에도 딴 짓을 하며 허히덕거리며 놀고 있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처소' 따위는 없고 머릿속에는 쓰레기류가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나를 깨뜨려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해 주셨고, 이 성전을 지을 나머지 또 다른 돌들을 구해오라는 특명을 주셨다. 사실 또 다른 돌들은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나는 청피하고 부끄럽다고 내 주위에 있는 학교 친구들에게조차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기 일췌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축복받은 아이인데 뭘 못하겠는가! 그래서 난 돌들을 찾아 나설 것이고, 그 돌들이 정해진 장소에 놓여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여 전도할 것이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은미(중동1부)



## 두 마음

(야고보서 1:5~8)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는 예수님과 한 집에서 30여년을 함께 지냈기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형인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할 정도였다.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 혈육을 나누는 친형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야고보가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변화했다. 다른 사도들과 함께 초대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였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하다가 야고보는 투옥되었다. 순교를 앞둔 야고보는 본 서신을 기록하였다. 첫 인사말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 야고보는 흠없이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약 1:1) 한 때 형 예수님의 사역을 맡았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밝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였다.(약 2:1) 입박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강림하시키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하였다.(약 5:7-8)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인 유다는 어땠는가? 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유:4,25) 한 때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복잡한 마음을 버리고 야고보와 유다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는가?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할 뿐이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는다. 영적인 지혜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다. 은혜로 영적인 지혜를 받는다. 영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에 성경, 화평, 관용, 양선, 공용,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약 3:17) 생명과 평안뿐이다.(롬 8:6) 영적인 지혜를 소유한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 10:4~5) 영적인 지혜는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든다.

두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예.”와 “아니오.”(고후 1:19)가 분명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성경을 왜곡하며 필요에 따라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와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로 섬겼더라”(왕하 17:33)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의지할 때가 더 많다. 세상과 성경을 적당히 섞으며 이 백성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은 알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우리의 두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리느냐 여호와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지라”(왕상 18:21)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약 4:8)

이스라엘의 역사 중 아합시대가 가장 부패하였다. 그러나 아합 시대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는 없었다. 이처럼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찬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부요하고 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두 마음을 품게 된다. 조화롭고 중립적인 삶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뭇가? 알겠는가? 복음화가 생각자라는 의심까지 말라.(약 1:6~7)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지금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두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총이다.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자. 영적인 지혜를 품은 은총의 자녀가 되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찬 549장) 아멘.

## 마가복음 강해 44

• 매주 월요일세탁기도(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실수

(8:27-33)

8:27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 떠들던 이야기를 하였다.(막 8:28) 해물 왕은 자신이 죽은 자도 요한이 부활했다고 믿었다.(요 6:14~15)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승천한 열리가가 다시 세상에 올랐다.(왕하 2:8~15) 이것은 베드로의 예언과도 일치했기 때문이다.(말 4:5~6)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권위있는 말씀과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각각 아는 대로 이해했다. 예수님은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막 8:29)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를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다.(삼상 24:6)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귀하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요 1:41)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대하였다.(시 138:6) 로마 치하에서 빈곤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는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정권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적 중요요즘을 주는 메시아였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써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의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시 114:4)

말씀을 묵해한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은 오늘날의 변형신학을 만들어왔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 이에 교회도 발맞추어 영광의 십자가만 말할 뿐 고난의 십자가를 지거나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물러서가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통 같은 것 등등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실수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막 8:30) 그런데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고하셨다.(막 8:31) 이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로써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막 9:31, 10:33~34)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베드로는 항변하였다.(막 8:32)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막 8:33)

베드로의 항변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자신의 스승이 죽는다는데 이것을 기만하듯 두고 볼 제자가 있었는가?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강령하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일은 문화와 회화를 이루는 평범하고도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탄이다. 하나님의 초점은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였기 때문이다.(고전 1:23~25) 그런데 평범한 신자들은 이것을 싫어한다.(행 4:1~2) 종교인들의 행태는 더 심각하다. 말씀 속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밝히기보다는 말씀을 세상의 부속물로 만든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예수님은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막 10:45)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는 분명 대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가 없었기에 실수하였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 때 실수하지 않는다. “주의 곁에 있을 때만이 든든하고요, 주여 인도하소서.”(찬 401장) 아멘.

##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언어와 영성훈련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부족한 나를 도우려 사용에 달라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갔다. 삼엄한 감시체제 아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조심스레 속소에서 30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로 향했다. 현지인들은 낯선 우리 모습에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는 미소 지으며 인사하면서 손을 잡아 주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때에는 두세 번 반복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전하고도 전했다. 언어전달의 어려움으로 답답했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의 표정을 보며 미소 지으며 그들은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반갑게 대하며 말씀도 듣고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떤 가정은 복음을 거절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밖에 없다고 "예수님 믿으세요!"를 외치며 복음을 전했다.

첫날 사역은 팀원 모두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도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속소로 돌아왔다. 둘째 날 사역은 경전회와 주일예배를 현지 속소에서 전했다. 은혜 중에 예배를 마치고 오후사역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출발했다.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을 준비해 주셔서 팀원들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주님께 감사드렸다. 현지인들도 아쉬운 듯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튿날 때 팀원들은 찬양하며 가자 중에 자신의 고백이 있을 때면 울먹이며 감사했다.

다음날 사역자로서는 더욱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전령의 충력으로 정신을 잃은 아버지가 이곳저곳을 헤매며 돌아다니는 안타까운 가정을 방문하였다. 복음을 전하자 딸의 마음을 기뻐했다는 뜻이 열렸고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딸은 어머니와 언니까지 데려와 소개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거라고 말해주며 기도했다. 어머니의 얼굴에 아픈 마음이 녹는 듯함이 사라진 듯 미소가 퍼져갔다.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선교현장이었다.

정성훈(집사, 4교구 4지역)

## 상쾌한 선교

나는 선교를 2년만 다녀 왔다. 예전에는 전도만 열심히 하고, "아멘."이라는 소중찬 단어가 나오고 찬양과 율동만 가르쳐 주면 주님을 영접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나의 생각이었다. 이제는 선교지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에 내전 정발 빛나는 보석보다 더 값지고 소중해졌다.

선교는 정말 족족같이 강한 것 같다. 겨울방학 때에만 가고 여름방학 때 안 가려고 했는데, 학업이나 세상 친구들과 모든 오락적인 것들을 떠나 겨우 올 수 있었던 지난 여름선교는 정말 내게는 소중한 것이다. 겨울선교를 다녀와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내 착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여름 단기선교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정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 같다. 아니, 확실하 들어오셨다.

첫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을 약간 걱정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사이도 좋아졌고, 찬양도 열심히 불렀다. 시장에 사역을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물려들어 오며 즐거움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 나중에 총무부생님께서는 "사역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시원한 바람을 만난 것처럼 기분이 상쾌했다. 마지막 사역 때에는 한 여자아이와 찬양을 20~30분 정도 따라하며 율동과 찬양을 다 외워버려 헤어질 때는 뽀뽀 해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동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울컥할 것 같았지만 꼭꼭 참으며 인내했다.

집구 돌아보아도 진흙과 오물을 밟아가면서서 서로 먼저 전도하겠다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좋았다. 물론 복음만 전하고 온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깊이 알게 되었고 친해졌다. 협동심, 인내심과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말과 행동, 따뜻한 웃음과 미소, 이 모든 것을 선교지에 있던 그 순수한 영혼들에게서 배웠다. 그곳에서 깨달은 것들을 한국에서 전도할 때 꼭 실행해야겠다. 집에 가기도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할 것이다. 내년에도 선교를 갈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등대 같은 자가 되고 싶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린다.

김한필(총동1부 3팀)

새가족양육부 10월 수료자 (2)

## 진실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 종교교회 전도사님의 인도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술과 담배를 끊도록 노력하며 깨끗하고 참된 생활을 하겠습니다. (배재용)

♥ 어느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인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의 죄를 대신 질어지셨기에 속연해 집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태어난 듯합니다. 그동안의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점점 변화하고 있는 저를 보며 그냥 좋습니다. (서은애)

♥ 평소 친분이 있는 언니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고 자비하시며 평안함을 주는 분이십니다.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어지셨고 못 박아셨습니다. 항상 조금씩 불만있던 마음이 교회에 가면서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김성화)

♥ 중언교회에 다니시는 어머니의 권유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대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아픔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십자가의 나레에 새 삶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성경말씀을 통해 주님께 대하여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자신의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윤)

♥ 2년 전부터 친한 친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와 길을 만큼 읽는 상황에 접했을 때 기도 중에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였고, 친구의 소개로 중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사랑의 형상이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깨달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예배 중에 얻어지는 은혜를 통해 주님이 새우신 교회,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어 충성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다른 세대로 돌리는 중입니다. 나의 생명과 영원이 이렇게도 소중한 고귀한 것인지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생령과 과거와 현재와 가지고 있는 고난까지도 모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믿을의 자녀가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소율)

♥ 처남씨의 전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내 삶을 뒤 돌아보게 되었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박귀희)

♥ 아내의 간곡한 간주로 중언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 된 자를 찾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원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사랑을 확증해주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이제 제 삶이 비애와 줄 알고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홍장기)

(편진국)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10월 30일(목)~11월 7일(금) | 6교구 7지역 | 안상직 |
| 10월 30일(목)~11월 7일(금) | 8교구 2지역 | 김 근 |

##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1807 | 안영민 | 9  | 장년1부 | 전귀환(9)  |
| 1808 | 이태경 | 10 | 청년1부 | 정윤선(6)  |
| 1809 | 김소진 | 15 | 청년1부 |         |
| 1810 | 정영자 | 19 | 청년1부 |         |
| 1811 | 박현진 | 17 | 소망부  | 강옥란(10) |
| 1812 | 김성배 | 7  | 장년1부 | 최준호(20) |
| 1813 | 유영미 | 17 | 청년1부 | 김정자(7)  |
| 1814 | 함남식 | 11 | 장년4부 | 김복수(11) |
| 1815 | 김은미 | 4  | 청년1부 | 이윤진(5)  |

\* 중언교회와 한가족이 57명 환영하는 분은 본인 2008년 11월 9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